

김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전국 2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발표, 2년 평균 지지율 '49.9%'

김승환 교육감이 전국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2년 평균 지지율 2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취임 2주년을 맞아 발표한 2020년 6월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지난 24개월 평균 긍정 평가는 49.9%로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2위다.

이는 전국 평균 지지율 42.3%보다 7.6%포인트 높은 수치로, 전북도민들이 김 교육감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지지율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얻은 득표율 40.1%에 비해 9.8%나 높은 것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혁신교육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김 교육감의 교육

정책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4개월 평균 긍정평가에서 장석용 전남교육감이 54.1%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인 김승환 교육감에 이어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각각 44.4%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광역 단위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 의견수렴에 기초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발전, 공공정책,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매월 진행하는 공공·정치·사회 부문 여론조사다.

/장은성기자



전주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학과장 채수정)는 전주시장애인기족지원센터(센터장 이홍미), 다운지역아동센터(센터장 임예정)와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원 등을 골자로 협약을 체결했다.

발달장애 아동·가족 삶의 질 높인다

전주대 중등특수교육과 협약

전주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학과장 채수정)는 전주시장애인기족지원센터(센터장 이홍미), 다운지역아동센터(센터장 임예정)와 함께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돋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전주대 LINC+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원' 등을 골자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오는 하반기부터 세 기관은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화 체험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발달장애 아동의 지역사회 경험 확장과 삶의 정서적 안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

번 프로그램은 전주의 전통문화체험과 남원 덕과면의 농촌마을체험 등 다양한 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각 센터의 전문가와 중등특수교육과 재학생·교수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발달장애인들과의 정서적 상호교류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했다.

채수정 학과장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에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전주시장애인기족지원센터, 다운지역아동센터와 뜻을 모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지역사회 공헌과 함께 실무교육을 통해 재학생의 특수교사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와 (사)전북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16일 전주비전대 통합멀티미디어 컨퍼런스룸에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지도, 맞춤형 인력, 외국인 유학생 양성 및 공급에 적극 협력하기로 신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대 김창민 교수 저서
2020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전주대학교 김창민 교수의 저서가 '2020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돼 전국 대학도서관에 보급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침서'에는 381개 출판사에서 발행한 3,284종의 국내 출판 학술도서가 인문학·사회과학·한국학·자연과학 4개 분야로 나눠 접수해, 271종의 우수학술도서가 뽑혔다. 이중 인문학 분야에 김창민 교수의 저서가 우수학술도서로 이름을 올렸다.

저서 '효적증초와 19세기 후반 제주도 마을의 사회구조'는 조선후기 호적 자료를 인류학적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선 후기 제주도 마을의 사회적 실재를 규명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전북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손 잡았다'

유학생 취업성공 등 협력

전주비전대학교는 청년 취업을 위해 (사)전북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16일 전주비전대 통합멀티미디어 컨퍼런스룸에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지도, 맞춤형 인력, 외국인 유학생 양성 및 공급에 적극 협력하기로 신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흥순직총장, 정석훈 대학혁신본부장, 최승훈 산학협력단장, 조숙진 대외협력센터장, 이효숙 국제교류원장, 백일현 신학협력부단장, 우병훈 자동차로봇학과 교수 전병

관 산학협력팀장과 유영진 이사장, 유태필 전무, 고재열 이사, 박진 총무부장, 정성주 전주협의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산업기술의 공동연구와 개발, 자동차 기술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 ▲외국인 유학생 단기채용 및 유학생 기술교육 ▲현장실습 및 취업에 관한 사항 및 상호 협력 등이다.

유영진 이사장은 "취업경쟁대학 및 전략산업기반인력 양성의 전통있는 전주비전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너무 기쁘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과 베트남 및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협장설립 및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

전북교육청, 이해학 거례살림공동체 이사장 초청 강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적극 나섰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현장에서의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7일 오후 3시 30분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초청 강연회를 진행한다.

이날 초청 강연회에는 이해학 (사)거례살림공동체 이사장이 강사로 참여한다.

거례살림공동체는 민간 영역에서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남측과 북측의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다. 주요 문화교류 사업으로 윷놀이 남북공동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며, 윷놀이를 통한 남북 문화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북한 사람들의 삶의 이해와 놀이문화'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비전으로 삼아 학교 평화통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학교평화통일교육 활성화 △학생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제고 등 평화통일교육지도자료 개발 등 4개 분야에서 1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담당 장학사는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균형있게 이해하여 통일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상대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통일정책 위주의 지식전달 교육이 아닌 교육과정 속에서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한 역량 중심의 평화통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며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